

장흥교도소 부지 9만㎡ 활용방안 뜨거운 관심

“공공기관 종합타운으로” “아파트 단지로”

오는 5월 용산면 여산리 이전 앞두고 논란

장흥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장흥지역 주민들 사이에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장흥을 원도리 200번지 일대에 있는 장흥교도소가 오는 5월 용산면

여산리 일원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지난 1975년 4월에 문을 연 장흥교도소는 총 9만474㎡(2만7000여평) 규모로 장흥읍 시내권에 위치해 주

거, 공장, 공원 등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이다.

소유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자산관리공사)가 어떤 절차로 매각할 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벌써부터 장흥 지역 사회에 부지활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대한 면적인 만큼 현재 산재되어 있는 군청을 비롯해 법원, 검찰청, 경찰서, 금융기관 등 모든 공공 청사가 입주해 주민들이 원스톱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종합타운’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주거문화가 군 소재지로 몰리고 1인 가구 등 핵가족 세대가 늘어나면서 장흥읍 시내권에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만큼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장흥 교도소내 재소자 교화위원회 측은 지난해 전국 50여개 교도소를 상징하는 전국 대학 법대생들의 교도

소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464억원을 들여 용산면 여산리에 신축중인 교도소는 16만2879㎡(5만2000여평) 부지에 재소자 500명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 사육(태양광 옥상)과 직원용 사택(30세대)이 들어 설 예정으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월출산기프트’ ‘왕인문화축제’ 우수 농특산품·축제 선정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왕인문화축제가 ‘2014년 대한민국 우수 농특산품 및 지역축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안전행정

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2014년 대한민국 우수 지역축제 및 우수 농특산품’에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월출산기프트’와 왕인문화축제가 선정됐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담양군, 세계 우수 교육도시와 교류협력 박차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승인 받아

담양군이 국제교육도시연합(IAEC)가입으로 국제 우수 교육도시와의 교류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담양군은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승인을 받았다

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번 가입으로 선진 교육도시와의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정책 개발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로

기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은 199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창설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단체로, 회원도시간 협력과 프로그램 공유로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으며 2013년까지 37개국 470

여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등록돼 있다. 국내에는 아·태지역 의장 도시인 창원시를 비롯해 여수, 순천 등 21개 도시가 있으며 전남지역 군 단위로는 담양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을 계기로 담양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는 한편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 새얼굴

“현장중심 경영 농업인과 소통 중시”

박 광 호 농어촌공사 나주시사장



“농업인들과 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농업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2일 부임한 박광호(55)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장은 “본사가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나주시사의 역할이 크다”며 “청렴도를 바탕으로한 현장 중심 경영으로 지역 농업인과 함께 하는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박지사장은 영암 출신으로 목포기계공고와 조선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1978년 농어촌공사에 입사해 영암지사 유지관리팀장, 전남지역본부 기전기술팀장 등을 역임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장흥~유치 국도 23호선 도로사업 확정

11.2km 총사업비 907억 투입 올해 실시설계 시작

장흥군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흥~유치간 국도23호선 도로사업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장흥을 행정리에서 유치면 늑용삼거리까지 11.2km 구간을 총사업비 907억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이 구간은 장흥~화순~광주와 장흥~나주~광주를 종 방향으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이다.

장흥~유치간 국도23호선 도로사업은 지난 2005년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됐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본설계가 진행됐다.

하지만 국가의 4대강사업 추진 등으로 SOC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교통량과 경제성(B/C)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우선 순위에서 계속 밀려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북



장수군 말산업 집중 육성

승마 유망주들이 장수 말타운 경기장을 돌고 있다. 장수군은 2017년까지 5991억원을 들여 말 생산, 교육연구, 레저·문화·스포츠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마무

/연륙뉴스

군산항 올해 2차 항로 준설공사

2018년까지 1800억 투입 퇴적 토사 걸어내

5만t급 대형 선박 안전한 입·출항 기대

군산항의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2차 항로 준설공사가 올해 시작된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1800여억원을 들여 퇴적 토사를 걷어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해마다 많은 양의 갯벌이 군산항 내·외항에 쌓이면서 항로의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도는 우선 올해 250억원을 들여 준

설이 시급한 군산항 1~2 부두의 진입 항로 수심을 현재보다 약 1.5m 더 깊게 팔 계획이다.

또 단계적으로 군산항의 모든 부두 앞 수심을 4m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준설공사를 진행, 1~5 부두에 쌓인 토사 총 2700여만㎥를 걷어내기로 했다.

이 토사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부지 조성 매립토로 활용된다.

군산항은 항로 등지에 쌓이는 갯벌의 양이 연간 200만㎥에 달하지만 준설량은 100만㎥밖에 안 돼 해마다 20~40cm 높이의 갯벌이 쌓이면서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

특히 5만t급 선박의 접안능력을 갖춘 자동차전용부두는 부두 밖 50m 이내의 수심이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에 못 미쳐 안전사고를 우려한 대형 선박이 입출항을 꺼리고 있다.

도는 이에 앞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 준설공사를 마쳤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민간투자사업 방식 본격 추진

전주시 현안사업 중 하나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안) KDI 사전검토 등 일련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중 정부(기획재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정부고시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감광화+슬러지)이 설치된다.

또 1106억원(국비 30%, 시비 10%, 민자 60%)이 투자되는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실시설계 경제성검토(VE) 및 설계입찰,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나주 목사고을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5일 석당간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 목사고을시장 이색 명물

보물 석당간 조형물 인기몰이

나주 목사고을시장에 가면 반짝반짝 이색 명물을 만날 수 있다. 나주시는 목사고을 시장 광장에 보물 49호인 동점문 밖 석당간(石幢竿)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세운 상징 조형물이 인기몰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석당간 조형물은 목사고을 문화관광사업단이 최근 세운 것으로 목사고을의 역사와 문화를 잘 표현했다. 외장을 거울과 유리타일을 이용해 영산강, 신촌리 금동관, 나주배와

쌀, 영산포 홍어, 황포돛배 등을 모아 이크 기법으로 표현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도록 해 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색 촬영지로도 손색이 없다.

나주시 관계자는 “역을 쫓는 석당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새해 인사행통의 기운을 얻어가길 바란다”며 “이 조형물은 목사고을 시장의 부흥의 의미도 담았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단신

전북대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신입생 모집

전북대 평생교육원 순창분원이 2014학년도 식품생명공학과 학사학위과정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신입생 40명, 편입생 20명이며, 신입생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편입생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졸업자나 중퇴자가 지원 가능하다.

원서는 오는 29일까지 순창분원과 순창군 행정과, 각 읍면 사무소에서 교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평생교육원 순창분원(063-653-9190)이나 순창군 행정과(063-650-1213)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말 산업 관련 시설·인력 확충 60억 투입

전북도는 말 산업을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에서 올해 이 부문에 60여억원을 투자하겠다고 5일 밝혔다. 도는 ‘호스퀵랜드’ 등 승마 시설을 확충하고, 말 산업 관련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가족 중심으로 승

마인구의 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말 산업을 품요로운 농어촌사회를 만들어 가는 활력산업, 건강사회를 이끌어가는 웰빙산업, 고소득시대에 부응하는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군산의료원, 전북도 직영 체제 전환

공공의료시설인 군산의료원이 전북도 직영 체제의 첫발을 내디뎠다.

군산의료원은 지난 2일 의료원 강당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 기대에 충족하는 경영과 공공성 추구 병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유택수 신임 군산의료원장은 “병원 안정화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경쟁력을 높여 민생적

자에서 탈피하자”고 제언했다.

의료원은 복지·평생학습 등 지역 행사 참여,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가정간호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전북도는 군산의료원을 15년간 원광대병원에 위탁운영했지만 적자가 530억원에 이르는 올해 1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기상대 95년만에 덕진동시대 열어

전주기상대가 95년 만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새 동지를 틀었다.

전주기상대는 지난 3일 정밀한 관측시설과 정확한 관측을 위해 전주시(VE) 및 설계입찰,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새로 이전한 전주기상대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행정적인 업무와

기상관측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편, 전주기상대는 1918년 전주시 남노송동에 건립돼 전주와 남원, 정읍 등 9개 시·군 예보와 전북지역, 전북 해상의 기상특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